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방안

1. 서 론

1997년 11월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로 축산업 특히 양돈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으로 현재는 돈가(豚價)의 회복과 안정적 발전단계에 와있다. 양돈 산업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돈육의 일본 수출이 활발하여 1997년에 51,659톤, 1998년에 8만여톤을 수출하여 돈육의 수급 조절은 물론 무역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의 박멸은 200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양돈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돈육의 품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어 보다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우리 나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아래서 1947년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가 공식적으로 진단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돼지콜레라 박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돼지콜레라는 계속 발생하여 왔고 여러 가지 대형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그 동안 정부에서의 방역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박멸정책으로 일관해오고 있으며 많은 노력과 예산의 투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82년도에 많은 발생으로 큰 피해를 본 이후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1996년에 약간 발생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8년에는 발생보고가 현저히 줄었다. 그러나 작년 말 제주도와 충남 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병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두 지역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이 모든 양돈농가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며 그리고 정책 당국자에게는 앞으로의 돼지콜레라의 방역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교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돼지콜레라에 대하여 근본적인 박멸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방안에 대하여 필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예 재 길 박사
(엘랑코 코리아 연구개발부장)

2. 우리 나라의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

〈〈돼지콜레라 근절 대책 추진 방향〉〉(월간양돈 99년 1월호 p.103)

* 제 1단계(2년): 전국적인 생독백신 접종강화(백신 접종률 45.5%에서 95%이상으로)

★피해 최소화 단계

감염돈군의 이동 제한 및 감염개체 살처분 보상.

* 제 2단계(2년): 생독백신 접종금지 및 유사시 대비 유전자 재조합

백신 비축

★청정화 조성

감염돈군의 도태 보상

* 제 3단계(1년): 백신 접종 금지 및 청정화 유지 확인

★근절 확인

검역 강화로 국내 유입 차단

(5개년 계획으로 2001년 청정화 목표)

〈〈주요 추진 대책 및 실적〉〉

*공동방역사업 실시단 구성 및 운영(53개소)

*돼지콜레라 발생 조기 신고

*체제 확립 및 제도 개선

*병성감정 및 검진업무 기능강화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

*가축 방역 관련제도 개선 추진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지원강화

3. 미국의 대책

*제 1단계: 전국적인 발생 역학조사 실시(준비 단계)

*제 2단계: 백신접종 실시(초기에는 생독백신 접종 후 사독백신 접종 단계)

*제 3단계: 감염돈군 전체 도태 및 보상(발생 제거 단계)

*제 4단계: 백신사용 금지 및 검색강화(재침입 방지 단계)

★양돈 관련단체가 박멸 대책을 주도하고 행정 각 부처에서 기술, 인력,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1961년 돼지콜레라 박멸법을 제정하여 생산자 중심으로 박멸 정책 추진하였으며, 박멸 성공하여 1978년에 박멸 선포하였음.

4. 일본에서의 대책

*제 1단계 : 백신접종 강화(백신 접종률 70%에서 95%이상 달성)

항체 조사사업으로 방역대책 진척상황 확인

*제 2단계 : 방역상황 및 수준에 따라 지역구분 차별화

1) 청정지역 : 백신접종 중지 및 검색확대

2) 발생 가능 지역: 백신 접종 및 집중 방역관리

*제 3단계 : 백신접종 금지 및 청정돈 유지 평가를 위한 확인 조사

요즈음도 양돈인들의 모임에 가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상황을 조사해 보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히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은 양돈장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는 양돈장에서의 방역조치 중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것이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1960년대에 일본에서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많았으며 철저한 백신 접종으로 발생이 감소하여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발생이 없었다.

1980년 다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지역별 생산자, 양돈 관련단체, 정부 관련기관 등으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역 정책 수행하여 성공적인 박멸 효과를 거두고 있음.

최근 5년 동안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는 상태임.

5. 우리 나라에서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

1) 양돈 농가의 참여

요즈음도 양돈인들의 모임에 가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상황을 조사해 보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리고 철저히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은 양돈장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는 양돈장에서의 방역조치 중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것이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임을

▲경기 동남부 지역(이천 · 안성 · 용인 · 여주) 방역협의회가 지난해 말 구성되어 돼지콜레라 박멸활동에 들어갔다.

주지시키고 있다.

돼지콜레라의 발생으로 양돈장이 폐쇄되고 많은 돼지가 폐사되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바로 양돈장 소유자이다. 이런 현실은 양돈 농가가 주도가 되어 돼지콜레라 질병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돼지콜레라 박멸 정책이 방역 정책 담당자, 양돈 전문 수의사, 각 양돈 관련 단체장들만 동분서주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를 완전 근절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아직까지도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을 권장하고 있는 접종일령에 2회 정확하게 접종하지 않고 양돈장에서 사양관리의 편의성만 내세워 이유시에 1회 접종하고 있는 양돈장이 있다는 사실에 깊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돼지콜레라 질병에 대하여 대부분의 양돈인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생산자 중심의 돼지콜레라 박멸운동을 펼쳐야 할 때이다. 최근에는 지역별 양돈장 중심의 돼지콜레라 박멸운동이 경기도 이천, 여주, 안성, 용인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양돈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 참여

경기 동남부 지역(이천, 안성, 용인, 여주)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돼지콜레라 박멸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돼지콜레라 백신을 100%실시하고, 이를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까지 완전 박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 지역에서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특별 자문단까지 구성하였으며, 자체 예산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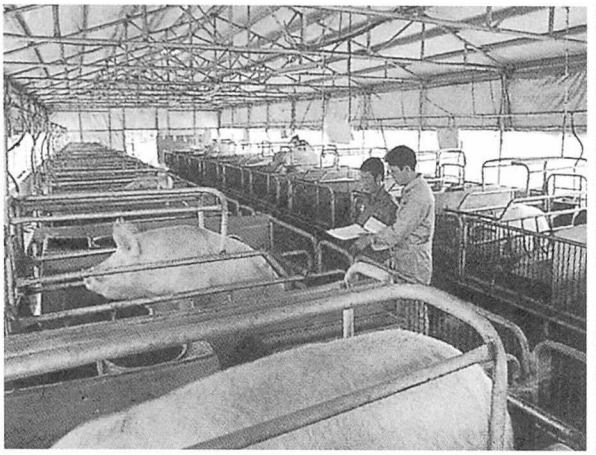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여러 종류의 양돈 관련단체가 있으므로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돼지콜레라 박멸특별 대책기구로 전환하여 경기 동남부 지역과 같이, 지역별 특성을 살려 돼지콜레라의 박멸 운동을 전개해나가 주기를 바란다. 지역별 조직이 활성화되고 대부분의 양돈인이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박멸 대책 기구가 결성될 것이다.

더욱 더 바람직한 것은 기존의 대한양돈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운동 기구를 결성하여 정부의 조직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연계하여 돼지콜레라 박멸운동을 활발히 전개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돼지콜레라의 박멸도 미국과 일본 같이 가능할 것이며 다른 나라보다도 짧은 시일내에 돼지콜레라의 박멸이 가능할 것이다.

3) 철저한 상황 조사와 방역 정책의 지속적인 보완

돼지콜레라의 방역 대책에 관하여 여러 가

이제는 생산자 중심의 돼지콜레라 박멸운동을 펼쳐야 할 때이다. 최근에는 지역별 양돈장 중심의 돼지콜레라 박멸운동이 경기도 이천, 여주, 안성, 용인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질병발생을 정확히 보고하고 난 후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지만, 필자는 지난 십여년간 논란이 되어온 잠복 감염된 돼지콜레라 감염증과 만성 돼지콜레라 감염에 관하여 이제는 정확한 역학 조사와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강독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양돈장에 상재해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조사와 더불어 양돈장에서의 강독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상존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적절하게 실시한 후 항체조사하면 항체가가 매우 낮게 나오거나 항체가 없는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될 것이다. 백신의 보관 상태의 불량, 접종 방법의 잘못, 혹은 접종 일령의 잘못 등 다양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잘못된 예방 접종으로 인하여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수반되는 경우를 필자는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돼지콜레라 발생시 양돈농가에서는 신속, 정확히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더불어 우리 나라 방역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이제 양돈산업의 성패는 돼지콜레라의 성공적인 박멸 여부에 달려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자 중심의 돼지콜레라의 박멸이 성공을 거두었으며 양돈장, 양돈 단지, 지역별 양돈단체 중심의 돼지콜레라 박멸 사업이 효과적이고,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전국의 모든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질병발생을 정확히 보고하고 난 후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술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만 탓하지 말고 양돈장 중심의 돼지콜레라 박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정부의 확실한 지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돈